

해녀 <노 짓는 노래>의 사실과 현장성

이 성 훈*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가창 방식과 구비 전승 |
| II. 자료 개관 | V. 맺음말 |
| III. 해녀의 본토 出稼와 海路 | |

I. 머리말

제주도를 비롯한 본토 해안에 가면 무자맥질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물질 작업’을 하는 제주 출신 해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마 적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해녀들이 무동력 어선인 돛배를 이용하여 본토로 出稼하거나 물질 작업하러 갈 때는 노를 저으며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노 짓는 노래>¹⁾를 불렀다.

본래적인 <노 짓는 노래>는 제주도에서만 전해진다²⁾고 보는 것은 제

*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 교사

- 1) 선학들의 논문이나 자료집에서는 해녀들이 뱃물질 나갈 때 櫓 저으며 부르는 노래를 <海女謠>·<海女노래> 등 여러 가지 분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노 짓는 노래>라 하고자 한다. 필자는 『통영지역 해녀의 <노 짓는 노래> 고찰』(『崇實語文』제18집, 송실어문학회, 2002, pp.197~200.)에서 <노 짓는 노래>라는 분류 명칭을 새롭게 설정하여 사용할 필요성을 살핀 바 있다.
- 2)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p.141

주도가 해녀의 발상지라는 지역성에만 초점을 둔 것이다. 해녀는 제주도에 밀집되어 있지만 본토의 모든 해안지역에도 출가 해녀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해녀 <노 짓는 노래>는 지역성보다는 가창자에 초점을 두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 출신 해녀가 거주하는 동·서·남해안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³⁾

구비시가의 특징은 문헌시가와는 달리 ‘口演性’에 있다. 구연성은 노래문학의 성격인 동시에 사설의 작시원리에까지 작용하는 것이다. 구비시가의 구연성은 노랫말의 존재양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성격이다.⁴⁾ 또한 구비전승되는 민요는 현장성이 강조된다. 구연 상황을 중심으로 가창자와 청중, 사설과 가락을 살피는 일은 현장론적 연구의 핵심이다.⁵⁾

민요의 사설을 구연 현장의 상황과 관련하여 나송만⁶⁾은 농업노동요를, 류종목⁷⁾은 민간의식요를, 이창식⁸⁾은 유희요를 집중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김기현·권오경⁹⁾은 어업노동요를, 강동학¹⁰⁾은 민요 후렴을 현장론적 입장에서 연구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해녀들이 출가하거나 뱃물질 나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인 해녀 <노 짓는 노래>의 경우, 구연 상황과 구연

3) 필자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강원도 속초시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노 짓는 노래>를 100 여편 채록했다.

4) 이창식, 「口碑詩歌의 口演樣相 -방아전승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민요학』 제6집, 1998, p.225.

5) 김기현·권오경, 「경북 동해안 지역 어업노동요」, 『한국민요학』 제7집, 한국민요학회, 1999, p.19.

6) 羅承晚,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7) 柳鐘穆, 「韓國民間儀式謠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민간의식요연구』, 集文堂, 1990.

8) 李昌植, 「韓國遊戲民謠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韓國의 遊戲民謠』, 集文堂, 1999.

9) 김기현·권오경, 「경북 동해안 지역 어업노동요」, 『한국민요학』 제7집, 1999, pp.19~61.

10) 강동학, 「민요 후렴의 현장론적 이해」, 『한국민속학』 제26집, 민속학회, 1994, pp.5~25.

현장을 바탕으로 한 현장론적 입장에서 분석 연구한 것은 지금까지 전무하다.

현재 해녀의 물질 작업은 남아 있지만, 해녀들이 본토로 出稼하거나 뱃물질 나갈 때는 정기 여객선이나 동력선을 타고 간다. 따라서 뚝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 일은 없다. 이처럼 <노 젓는 노래>의 歌唱機緣인 노 젓는 일이 사라졌기에 현장론적인 입장인 자연적인 조건 아래서 <노 젓는 노래>가 어떻게 구연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노를 저어 본 경험이 있는 해녀들이 있어서 <노 젓는 노래>가 구연되었던 현장의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사할 수는 있다.

필자는 본고에서 노를 저어 본 경험이 있는 해녀들의 구술 자료와 <노 젓는 노래>의 사실을 통하여 <노 젓는 노래>가 가창되었던 구연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자료와 연구 문헌들을 간략히 해제하고, 둘째로 해녀의 出稼 원인은 무엇이며, 본토의 出稼 對象地로 갈 때 이용했던 海路는 어떠한가. 세째로 가창 방식은 어떠한가, 구비 전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현장론적 입장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자료 개관

1920년대부터 2002년까지 발표된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자료와 연구 문헌들을 필자가 확인한 자료에 한해 간략하게 解題하려고 한다.¹¹⁾

<노 젓는 노래>가 제주도에서 언제부터 불리워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錦南 崔溥(1454~1504)의 <耽羅詩 三十五絶> 중에 二十絶을 보면,

11) 필자가 과묵한 탓에 미확인 자료는 계속 수집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底處一聲送櫓歌 배 밑에서 한 목소리로 배 짓는 노래
 逐船來趁疾於梭 마중 나온 배 북과 같이 빨리 다가와
 蓬窓揭了問前程 봉창을 걷어 올려 앞길어 얼마인지 묻노라니
 館在朝天影蘸波 조천관(朝天館) 초루의 그림자 물에 비치네.¹²⁾

라고 하여, <노 짓는 노래>가 15세기에도 불리워졌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물질 작업하는 실태와 현장을 기술한 옛문헌으로는 17세기에 李健의 『濟州風土記』(인조 7년, 1629년)¹³⁾와 申光洙(1712~1775)의 『石北先生文集』卷7(1848년) <潛女歌>¹⁴⁾ 등이 있다.

본토 출가 제주 해녀에 대한 언급은 『개벽』제39호(1923년 9월 1일)에 乙人の 「盈德은 엇더한 지방?」¹⁵⁾, 『삼천리』제1호(1929년 6월 12일)에 金料白의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¹⁶⁾이 있고, 『별건곤』제31호(1930년 8월

12) 李增 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p.210.

이 시는 崔溥가 1488년 1월 濟州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왔을 때 지었다.(李元鎮 著, 김찬흠 외 7인 譯,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2002, p.196.)

13) “해산물에는 단지 전복, 오징어, 미역, 황옥돔 등 수종이 있고, 이밖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애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벌거벗은 몸으로 바닷가에 짝 차서, 낮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상잡(男女相雜)하고[서로 어울려]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치 않는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복을 잡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양순필, 「16·17세기 제주풍토록과 풍토기의 대비」,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92, p.470에서 재인용).

14)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擊水相戲橫乘流. 忽學鳧雛沒無處, 但見瓢子輕水上浮. 斯須湧出碧波中, 急引繩繩以腹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p.35에서 재인용)

15) 乙人, 「盈德은 엇더한 지방?」, 『개벽』제39호, 1923, p.119. ‘해녀들의 활동’에 대한 단편적인 글이 실려 있다.

16)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삼천리』제1호, 1929, pp.22~23. 여기서 필자 김두백은 “꽃가튼 二萬 裸婦가 굴캐며 勞動하는 勇姿. 안해가 남편을 먹

1일)에 申光洙의 <潛女歌>¹⁷⁾가 소개되어 있다.

<노 짓는 노래>를 수집한 잡지나 자료집을 들기에 앞서 수록된 각편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들면, 제주 해녀나 뱃사공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인 <노 짓는 노래>의 분류명이 앞서 지적인 것처럼 여러 가지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각편의 구분도 자료집마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다르게 나누어져 있다. 사실 내용이나 제재별로 각편이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 현장론적 방법에 따라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의미단락의 구분없이 수록된 자료들이 있다. 이제 민요 연구자들이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재정리하고 또한 각편을 나누는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연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노 짓는 노래>¹⁸⁾를 수집한 자료집은 채록자가 의도적으로 각편을 나누어 기록한 것과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기록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채록자가 제보자가 구연한 각편을 의미 단락별로 나눈 후에 사실 내용이나 제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자료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삼천리』제1호(1929년 6월 12일)에 1편,¹⁹⁾ 『별건곤』제42호(1931년 8월 1일)에 7편²⁰⁾, 林和의 『朝鮮民謠選』(李在郁 解題, 소화14년, 1939)에 17

여 살니나? 그네의 명조관림은 엇든가?”라는 서두로 ‘해녀의 外樣, 작업실태, <노 짓는 노래>의 구연 현장, 출가지에서의 삶’ 등에 대해 보고 들은 바를 기술하고 있다.

17) 申光洙, <潛女歌>, 『별건곤』제31호, 1930, p.31. 『石北集』7卷(1848)에 수록된 조선 후기 숙종 때 시인 申光洙의 <潛女歌>가 수록되어 있다.

18) 제주도 노동요의 요종은 본토의 여느 민요와 같이 후렴구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제주도 <노 짓는 노래>의 특징은 ‘이여도사나’ 또는 ‘이여씨’ 등의 후렴이 붙는다. 제주도의 <노 짓는 노래>는 창자가 간혹 남성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여성인 해녀들이 불렀다. 각주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 저으며 부르는 노래를 민요자료집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본고의 <노 짓는 노래> 자료 수집사는 창자의 성이나 분류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후렴구와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19) 金料白,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삼천리』제1호, 1929, pp.22~23.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편²¹⁾, 金思燁·崔常壽·方鐘鉉의 『朝鮮民謠集成』(1948)에 7편²²⁾, 崔永日의 「濟州島의 民謠」(1956)에 17편²³⁾, 金永三編 韓容柱 蒐集의 『濟州島民謠集』(1958)에 24편²⁴⁾, 秦聖麒의 『濟州島民謠』제1집(단기4291, 1958)에 32편·제2집에 36편·제3집에 40편²⁵⁾, 任東權의 『韓國民謠集 I』(1961)에 7편²⁶⁾·『韓國民謠集 II』(1974)에 6편²⁷⁾, 金俊培의 「韓國 民謠의 韻律 研究」(1962)에 1편²⁸⁾, 김영돈의 『濟州島民謠研究上』(1965)에 199편²⁹⁾, 高橋亨

-
- 20) 「海女の 노래, 濟州道民謠」, 『별건곤』제42호(1931년 8월 1일). 채록자와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 21) 林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pp.239~242. 여기에는 <海女歌>란 명칭으로 17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가 서귀포 京化順 33세 해녀라고 밝히고 있다.
- 22) 金思燁·崔常壽·方鐘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
- 23) 崔永日, 「濟州島의 民謠」, 『崇實大學報』, 제2호, 崇實大學學藝部, 단기 4289(1956), pp.232~271. 여기에 수록된 <海女歌> 17편은 “金台俊 蒐集 所藏 이었던 濟州道 民謠로서 1939년 3월 學藝社刊行 朝鮮文庫本 『朝鮮民謠選』에 記載되었던 部分을 참고 삼아 併記한 것이다.”라고 附記하고 있다.
- 24)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pp.7~34. 해녀노래 17편과 뱃노래 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뱃노래 7편의 사실은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사실과 유사하다.
- 25) 秦聖麒, 『濟州島民謠』제1집(희망프린트사, 1958, pp.126~153)·제2집(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pp.51~74)·제3집(성문프린트사, 1958, pp.61~92). 제1집에는 가창자와 수집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제2·3집에는 수집장소가 밝혔지만 가창자를 밝히지 않았다.
- 26) 任東權, 『韓國民謠集 I』, 集文堂, 1961. 여기에 수록된 7편은 <橈 젓는 노래 1·2·3>(281~287번 자료)라는 분류 명칭으로 남성 노동요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보자와 채록 일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27) 任東權, 『韓國民謠集 II』, 集文堂, 1974. 여기에는 남성 노동요 <노 젓는 노래> 1편(625번 자료)과 <뱃노래> 1편(660번 자료), 여성 노동요 <海女謠>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海女謠1>(787번 자료)는 흑산도지방에서, <海女謠2·3>(788·789번 자료)는 제주지방에서, <해녀요4>(790번 자료)는 秦聖麒 「오늘 또기」에서라고 밝히고 있다. 제보자와 채록 일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28) 金俊培, 「韓國 民謠의 韻律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2, pp.55~56. 노래 명칭과 제보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내용이 <노 젓

의 『濟州島の民謠』(1968)에 14편³⁰⁾, 任東權의 『韓國民謠集Ⅲ』(1975)에 6편³¹⁾, 秦聖麒의 『南國의 民謠』(1977)에 36편³²⁾, 任東權의 『韓國民謠集Ⅳ』(1979)에 15편³³⁾·『韓國民謠集Ⅴ』(1980)에 15편³⁴⁾ 등이 있다.

다음으로 현장론적 조사 방법에 따라 실제 歌唱狀況에 역점을 두어 채록자가 각편을 나누지 않고 제보자가 구연한 대로 사실을 기록하거나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영돈·현용준의 『한국구비문학대계』9-1(1980)에 1편·9-2(1981)에 7편·9-3(1983)에 3편³⁵⁾,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韓國民俗綜合調査

는 노래>로 볼 수 있는 1편이 수록되어 있다.

- 29)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이 자료집은 제보자가 구연한 사실을 의미 단락별로 나누고, 나는 각편을 제재별로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 30) 高橋亨, 『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高橋亨은 1929년에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제주 민요를 채록했는데, 여기에 실린 민요 자료는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수집한 것이다.
- 31)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여기에 수록된 6편의 <海女謠>는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濟州道篇)』(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에 수록된 것이다.
- 32)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pp.123~137. 여기에 수록된 36편의 <해녀노래>는 『濟州島民謠』제1·2·3집에 수록된 108편 중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제보자와 수집장소를 밝혔다.
- 33) 任東權, 『韓國民謠集Ⅳ』, 集文堂, 1979. 여기에는 수록된 <海女謠1·2·3·4·6·7·8·11·14>는 濟州地方에서, <海女謠5·9·10·12·13·15>는 北濟州地方에서 採集했음을 밝히고 있다.
- 34) 任東權, 『韓國民謠集Ⅴ』, 集文堂, 1980. 여기에는 남성 노동요 <노 짓는 노래>(濟州地方) 1편과 여성 노동요 <海女謠>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海女謠1·3>은 濟州地方에서 채집한 것이고, <海女謠2>는 金永三 編·韓容柱 蒐集 『濟州島民謠』(中央文化社, 단기4291, 1958, pp7~24.) '海女노래篇'에 17편으로 구분되어 수록된 것을 한 편으로 묶은 것이다.
- 35)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1(복제주군 편, 1981)·2(제주시 편, 1981)·3(서귀포시·남제주군 편, 1983).
여기에 실린 11편의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소에서 간행한 『口碑文學調査方法』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조사한 것으로, 제보자의 직업·성격·태도 등에 대해서도 약술하고 있다.

報告書(濟州道 篇)』(1974)에 9편³⁶⁾, 김영돈의 『濟州의 民謠』(1993)에 21편³⁷⁾, 임석재의 『한국구연민요-자료편』(1997)에 2편³⁸⁾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제주대학교 국문과·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보고서』, 국어교육과·백록어문학회의 『백록어문』, 국문과의 『국문학보』에 수록된 65편³⁹⁾ 등이 있다.

해녀들이 뱃물질 나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인 해녀 <노 짓는 노래>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崔鶴璇은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해녀의 生態’⁴⁰⁾를, 秦聖麒은 ‘제주 여성의 근면성’⁴¹⁾을, 高橋亨은 ‘사실의 내용 분석’⁴²⁾을, 金榮敦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해녀의 작업실태와 관

36)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篇), 1974. pp.361~369. 채보자의 주소·성별·연령을 기입하고 있다. 채보자는 김영돈은 “전송자의 주소는 현거주지가 아니라도 전송자가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을 기입했고, 연령은 1971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37)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여기에 수록된 21편의 <해녀노래>는 현장론적 방법에 의해 각편의 구분 없이 채보자가 구연한 실제적인 歌唱狀況에 역점을 두어 수록되어 있다.

38) 임석재, 『한국구연민요-자료편』, 집문당, 1997, pp.168~175. 여기에 수록된 2편은 1962년에 채록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39) ① 『학술조사보고서』(제주대 국문과·국어교육과): 제8집(1984, 해녀노래 3편·뱃노래 1편).

② 『백록어문』(창간호~제10집: 제주대 국어교육과·제11집부터: 백록어문학회): 창간호(1986, 해녀노래 4편), 제2집(1987, 해녀노래 5편), 제5집(1988, 뱃노래 4편), 제6집(1989, 해녀노래 1편), 제7집(1990, 뱃노래 1편), 제9집(1992, 뱃노래 1편), 제11집(1995, 해녀노래 1편·물질하는 소리 1편), 제14집(해녀소리 1편, 노 짓는 소리 3편, 물질할 때 하는 소리 1편), 제15집(1999, 노 짓는 소리 5편), 제16집(2000, 노 짓는 소리 6편),

③ 『국문학보』(제주대 국문과): 제8집(1986, 해녀노래 3편), 제9집(1989, 해녀노래 3편), 제10집(1990, 물질 소리 1편), 제12집(1994, 해녀노래 1편), 제13집(1995, 뱃노래 4편·노 짓는 소리 2편·물질하는 소리 3편), 제14집(1997, 노 짓는 소리 3편), 제15집(2001, 물질하는 소리 3편, 해녀노래 4편).

40) 崔鶴璇, 「濟州島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 제4권 12호, 現代文學社, 단기4291(1958), pp.264~271.

41) 秦聖麒, 「濟州 民謠에 보이는 女人像: 특히 海女노래를 중심으로」, 『濟大學報』3, 濟州大學再建學生會, 1960.

런시켜 '배경·분포, 전승·전승자, 창법, 기능·제재, 내용, 표현, 연구과제'⁴³⁾ 등을, 변성구는 '유형 구조와 사실 유형'⁴⁴⁾을, 李性勳은 제보자의 생애 및 노동과 가락을 관련시켜 '생애력과 사실, 노동 행위와 가락과의 관계'⁴⁵⁾를, 한창훈은 해녀의 생활과의 연관성⁴⁶⁾을 분석 고찰했다.

Ⅲ. 해녀의 본토 出稼와 海路

제주도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한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本土로 出

42) 高橋亨 著, 좌혜경 옮김, 『제주섬의 노래(濟州島의民謠, 천리대학동양학연구소, 1968)』, 국학자료원, 1995, pp.148~153.

43) 金榮敦,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通文館, 1971, pp.307~324 ; 「海女노래와 海女」, 『心岳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塔出版社, 1977, pp.435~456 ; 「出稼海女の 노래」, 『韓國民俗學』제12호, 民俗學會, 1980, pp.272~274 ; 「濟州島民謠研究 - 女性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 「海女노래의 機能과 辭說分析」, 『홍미崔正如博士頌壽紀念 民俗語文論叢』, 계명대출판부, 1983, pp.159~179 ; 「海女노래의 사실 분석」, 『국어국문학』89권, 국어국문학회, 1983, pp.247~256 ; 「海女노래(1)」, 『北泉沈汝澤先生華甲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83, pp.139~157 ; 「海女出稼와 그 民謠」, 『玄谷梁重海博士華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7, pp.233~259.(『白鹿語文』3·4호 합병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 「海女の 珍重性과 그 研究課題」, 『韓南語文學』제13집,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pp.351~362.

44) 변성구, 「해녀 노래의 사실 유형 분석」,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pp.81~134

45) 이성훈, 「民謠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白鹿語文』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pp.305~334 ; 「통영지역 해녀의 <노 젓는 노래> 고찰-노동 행위와 민요 가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崇實語文』제18집, 송실어문학회, 2002, pp.195~215.

46) 한창훈, 「제주도 민요와 여성 : 특히 '잠수(潛嫂)'의 생활과 연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pp.81~98 ; 「제주도 민요와 여성 (2) -특히, '잠수(潛嫂)'의 생활과 연관하여-」, 제3회 민속학 국제학술회의, 1999, pp.41~53 ;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생활과 민요」, 『耽羅文化』제20집,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9, pp.145-161.

嫁하기 시작했을까. 해녀 출가의 원인을 康大元은 제주도의 잠수들은 점차 그 기술이 발전하고 인원이 늘어감에 따라 도내에만 머물지 않고 도외로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⁴⁷⁾고 보았다. 하지만 해녀의 본토 출가는 잠수 기술 발전과 인원이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장의 황폐화가 해녀의 出稼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⁴⁸⁾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1889년경에는 靑山島를 비롯하여 완도, 부산, 영도, 거제도, 남해의 돌산, 기장, 울산, 경북 일대까지 出稼하였는데,⁴⁹⁾ 1895년 부산 앞바다 영도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⁵⁰⁾ 1910년대 해녀 출가 상황을 여러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¹⁾

대표적인 형태에는 客主의 모집에 의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은 絶影島에 정착하며 일본인 무역상 밑에 있으면서, 매년 음력 12월경 제주도 각지에서 해녀를 모집하여 전대금을 건네주고 계약한다. 해녀는 기선으로, 뱃사공, 감독자 役 남자는 어선으로 본토에 渡航하여 부산에서 합류한 후 出稼地로 떠난다. 두 번째 형태는 독립 출가인데, 해녀의 남편 2~3명이 공동으로 어선을 매입하여 가족, 친척 등의 해녀를 승선시켜 출가지로 가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6대 4정도로, 객주의 모집에 의한 것이 많았다.

해녀들은 일반적으로 봄에 本土로 물질가서 가을 추석 무렵에 제주도로 귀향하곤 했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도 해녀들이 本土로 出稼할 때는 범선을 이용하여 며칠이고 노를 저으며 갔다. 1920년대부터 제주 -

47)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43쪽.

48) 후지나가 다케시, 「1932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시 우당도서관, 1997, p.93.

49)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43쪽.

50) 진관훈, 「日帝下 濟州島 農村經濟의 變動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3

51) 田口禎薫, 「제주도의 해녀」, 『조선』 218호, pp.81~82.(진관훈, 「日帝下 濟州島 農村經濟의 變動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5에서 재인용)

본토간 정기 여객선이 취항했는데도, 出稼地로 갈 때 무동력 어선인 돛배를 타고 갔을까. 그것은 출가지에서 뱃물질하러 갈 때 타고 간 돛배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⁵²⁾

필자가 채록한 바에 의하면, 출가 해녀 양송백은 18세가 되던 1923년 帆船으로 巨濟島 물질나갈 때 밤낮 가리지 않고 7일간 노를 저어 갔다고 한다.⁵³⁾ 해녀들이 본토 出稼 對象地로 가기 위해선 火脫島·楸子島와 제주해협을 건너가야만 했다. 전라남도 해남이나 목포 또는 서해안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인 울돌목(鳴梁海峽)을 거쳐서 갔다. 또한 경상남도 통영·사천 지역과 부산 또는 동해안 쪽으로 출가할 경우에는 所安島 해역에서부터 남해안의 다도해를 따라서 갔다.

해녀 <노 젓는 노래>의 사실을 통해서 해녀들이 노를 저어 본토 出稼 對象地로 갈 때 어떤 海路를 이용했는지, 바다에서 겪었던 체험과 구연의 현장성⁵⁴⁾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산 일출	보려 두곡
	소완도로	가는구나
	완도지방	넘어가근
	신기도영	넘어가곡

52) 제보자, 장안석, 경남통영시 제9통영호 선주, 전 통영시제주도민회장

53) “육지레 갈 때민 쫓술, 보리술을 혼 두어 말씩 쌍 가질 안하느나. 그된 강 술을 못 사난. 처음으로 거제도(巨濟島) 미날구미엔 혼디 가신디 남즈가 셋쯤 을 르곡 혼 열다섯 명이 풍선(帆船)으로 보름 술술 불민 듯 돌곡 보름 옷인 때민 널(槽물) 다섯 채 놓양 네 젓영 가곡 셴 마루 넘어갈 땐 배 안 올라가가민 기신 내영 젓젠 혼은 팔판지명 ‘여기야차 디야’ 해가민 막 올라가느네. 밤이도 젓곡 낮이도 젓이명 일뻘나 걸려시네.”[拙稿, 「民謠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白鹿語文』 第2輯,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7, 311쪽에 수록되어 있는, 필자가 1986. 7. 29에 채록한 양송백(梁松栢, 여, 81세,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은평리 869-2)이 구술한 자료].

54) 이창식은 민요가 불려지는 연행 상황을 ‘민요의 現場性’이라고 이름붙였다. (이창식, 「경합유희회의 현장론적 연구」, 『한국민속학연구』, 민속원, 1997, p.224.)

금당아로	넘어가근
저큰바당	다지나곡
지누리대섬	넘어가근
나라도로	건당훈다
나라도를	넘어가곡
뽕돌바당	지나본다
들산을	넘어가근
솔치바당	건너간다
솔치바당	건너가민
남헤로다	노양목
사랑도바당	넘어간다
물파랑것도	지나가근
지제장심포	넘어가곡
가닥동곳	지나가민
등바당을	넘어간다
다대곳을	넘어가민
부산영도	이로구나 ⁵⁵⁾

근세사회의 濟·京 海路는 楸子島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所安島를 경유해서 珍島 碧波津을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해로였다. 근세사회에서 所安島 경로를 海路로 선택한 이유는 所安島가 濟州島의 새로운 출발거점으로 등장한 朝天의 正北에 위치하여 韓半島와 최단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매개지가 됨과 동시에,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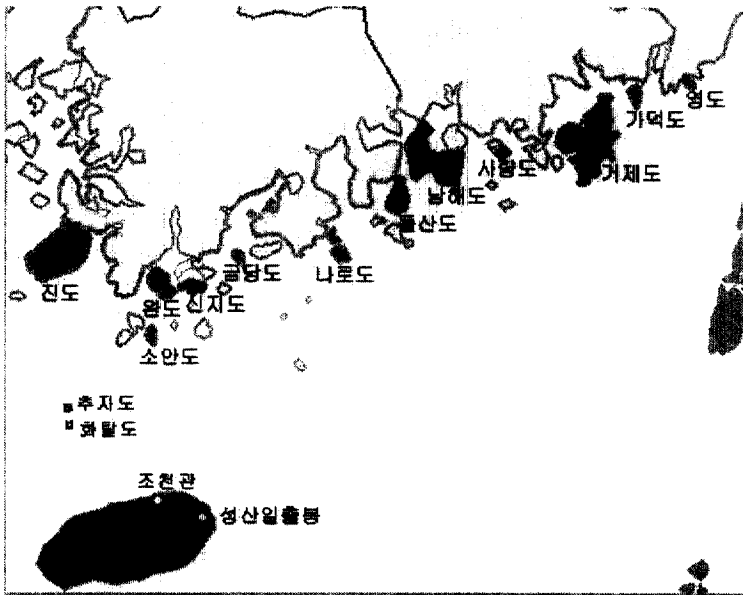
[1]은 해녀들이 本土 出稼對象地의 하나였던 부산 영도로 가는 바닷길에 있는 섬과 바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주도의 성산 일출(城山浦 日出峰)에서 출발하여 전라남도의 소완도(所安島)·완

55)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上』, 일조각, 1965, p.228. 874번 자료

56) 오홍석,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제주도연구』제1집, 제주학회, 1984, p.101.

도(莞島)·신기도(薪智島)·금당아(金塘島)·지누리대섬(未詳)·나라도(羅老島)·돌산(突山島)과 경상남도의 남해(南海島)·노양목(露梁海峽)·사랑도(蛇梁島)·지제장심포(巨濟島 長承浦)·가덕동곶(加德島)·다대곶(多大浦)을 거쳐서 부산(釜山) 영도(影島)에 이르는 바닷길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경상남도 통영·사천 지역이나 부산 등지로 出稼할 때 향로는 경상남도 지역이나 부산까지 직항로로 가지 않고, 우선 전라남도 所安島를 경유하여 남해안 다도해를 따라 경상남도나 부산 등지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에는 제주도에서 본토까지 돛배를 타고 노를 저어본 해녀들이 체험한 바닷길의 현장성이 드러나는데, [1]에 나타난 海路는 제주도 성산포에서 출발하여 추자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소안도를 경유한 다음에 남해안을 따라서 부산 영도까지 갔다가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림 1> 출가대상지로 가는 바닷길

이는 [1]에 나타난 해녀들의 본토 출가 항로가 근세사회의 濟·京海

路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1)이 근세사회에 지어진 <노 짓는 노래>라고 짐작할 수 있다.

[2]	좁은 배에	짐 하영 식견
	추즈 과탈	섬 중에 드난
	큰 과탈랑	아방을 삼고
	족은 과탈	어명을 삼고
	뎀 고개랑	가남을 삼고
	절 고개랑	지방을 삼고
	선개 먹을	육심은 아니고
	이 몸 살을	근심일러라 ⁵⁷⁾

[3]	배랭이서	배 짓어 놓안
	섬지 오란	섬 돌아 놓고
	도깨 오란	뎀 돌아 놓고
	한수풀 오란	한석혀여 놓고
	즈물개 오란	좁 흐꿈 자고
	신촌 오란	신 삼아 신언
	산지물간	물 췌여 먹언
	산지바당	배 놓아 두언
	손당오름	치돌아 보난
	족은 배에	짐 하영 시견
	추즈 과탈	양 새에 드난
	큰 오름은	아방을 삼곡
	족은 오름은	어명을 삼안
	선개 먹을	근심 안혹곡
	이내몸 살을	근심이라라 ⁵⁸⁾

[4]	좁은배에	짐하영싫으난
-----	------	--------

57) 秦聖麒, 『南國의 民謠』, 정음사, 1977, p.136. 261번 자료

58)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上』, 일조각, 1965, p.236. 904번 자료.

죽은관태	큰관태건널제편
선개받을	근심은아니허곡
열두선개	살아날근심만한다 ⁵⁹⁾

중세사회의 濟·京 海路는 근세 항로와는 달리 제주에 가까운 楸子島를 경유했는데, 珍島의 碧波津부터는 근세사회의 海路和 같이 서해안을 따라 펼쳐졌다.⁶⁰⁾ 옛 기록에 나타난 중세사회의 제주 海路를 살펴보면, 『高麗史』57卷에 “대개 탐라로 갈 때에는 나주(羅州)에서 출발하여 직행으로 무안군의 대굴포(務安大堀浦), 영암군의 화무지와도(靈巖火無只瓦島), 해남현의 어란량(海南於蘭梁)을 거쳐 7주야 만에 추자도에 도착하게 된다. 해남현에서 출발했을 때는 삼재포(三才浦)를 따라 가다가 거요량(巨要梁)과 삼내도(三內)를 거쳐서 이 섬에 이르게 되며 탐진에서 출발했을 때는 군영포(軍營浦)를 따라 가다가 고자도(高子島), 황이도(黃伊島), 노솔도(露瑟島), 삼내도(三內島) 등을 거쳐 3주야만에 추자도에 도착하게 된다. 제주로 가는 이 3개의 항로는 모두 이 섬을 거쳐서 사서도(斜鼠島), 대화탈도(大火脫島), 소화탈도(小火脫島) 등을 지나서 제주의 애월포(涯月浦)나 조천관(朝天館)에 닿게 된다.”⁶¹⁾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海路를 기술한 옛 문헌으로는 『林下筆記』⁶²⁾와 『新增東國輿地勝覽』⁶³⁾ 등이 있다.

59) 임동권, 『韓國民謠集 I』, 집문당, 1961, p58. 303번 자료.

60) 오홍석,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학회, 1984, p.100.

61) 『高麗史』 卷57, “凡往耽羅者 發羅州則歷務安大堀浦靈巖火無只瓦島 海南於蘭梁凡七晝夜至楸子島 發海南則從三寸浦歷巨要梁三內島 發耽津則從軍營浦歷高子黃伊露瑟島三內島 皆三晝夜至楸子島. 右三處舟船皆經此島. 過斜鼠島大小火脫島至于涯月浦朝天館”

62) 李裕元, 『林下筆記』 卷之十三 耽羅路程, 1871년(高宗 8年) “高麗地志 凡往耽羅者 發羅州歷務安大堀浦靈巖大無只瓦島 海南於蘭梁七晝夜 方至楸子島 發海南則從三寸浦歷巨安梁三內島 發康津則從軍營浦歷高子黃伊露瑟島三內島 皆三晝夜至楸子島. 右三處舟船 皆經楸子島過斜鼠島大小火脫島至於涯月浦朝天館”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崔溥의 『錦南漂海錄』의 국역본 『표히록』 초삼일 기록에도 火脫島를 지나 楸子島를 경유하여 巨要梁으로 가는 海路가 나타나 있는데, 추자도 부근은 바람이 치니 물살이 세고 빠르다⁶⁴⁾”고 하고 있다. 추자도와 추자도 남쪽의 草蘭島 愁德島⁶⁵⁾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표류했다는 기록은 고전소설 <裊裊將傳>⁶⁶⁾과 『朝鮮王朝實錄』⁶⁷⁾에도 보인다. 또한 <漂海類> 작품에도 추자도 근해에서 표류한 기록들이 많이 보인다.⁶⁸⁾

63) 李荇·洪彦弼,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五冊 卷之三十八, 全羅道 濟州牧, 1530 (中宗 25年) “凡往濟州者發羅州則歷務安大岫浦靈巖火無只瓦島海南於蘭梁至此島發海南則從三寸浦歷巨要梁三內島發康津則從軍營浦歷高子黃伊露瑟島三內島皆三晝夜至此島由此過斜風島及大小火脫島泊于涯月浦及朝天館”

64) 윤치부 주해, 『표히록』, 박이정, 1998, p.7. 崔溥의 『錦南漂海錄』의 국역본 『표히록』 “초삼일.....하야곰 두글 돌고 헝하야 계요 큰화탈도(大火脫島)를 지나니, 비 사름이 굵오더, ‘빈를 저어 거유량(巨要梁)을 지나 추즈도(楸子島)의 미미 심히 썩르다.’ 하디, 권산(權山)이 듯디 아니하고 타(舵)를 잡아 바람도치로 노호니 수덕도(愁德島)르나 셔녁호로 가더니 바다 괴운이 아득하고 바람이 치니 장춌추즈의 다히려 하더니, 혀는 물이 심히 급하고 날이 쏘 어두오니 격군(格軍)을 독촉하야 저오라 하대,”

65) 李荇·洪彦弼,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五冊 卷之三十八, 全羅道 濟州牧, 1530 (中宗 25年) “淸路島 知道島 草蘭島 愁德島 俱在楸子島南”

66) 『비비장전』, 新舊書林, 1916, pp.6~7. “머역섬(蓰子島)을겨우지나 추즈도(楸子島)를다다르니 동경서망초강분(洞庭西望楚江分)에 슈진남턴불견운(水盡南天不見雲)을 창파만경(滄波萬頃)에 히턴(海天)이일색(一色)이오 노도경각(怒濤頃刻)에 풍우(風雨)가 디작(大作)하야 동서남북(東西南北)이 모양무제(渺茫無際)헌데 집짓갓흔큰물결이 돌바위를 광광부쉬내며 바람을 따라 여긔셔도 우러령령 쥘저긔셔도 알랑알랑 키다리 썩저저 용츄줄마루쥬 동강고몰이번 듯 이물로 숙어지고 이물이번 듯 모물로 기우러져 덩벙뒤썩 조리질하니 무인절도(無人絶島)에 난파선(難破船)이 가레업다.”(仁川大學 民族文化研究所 資料叢書刊行委員會, 『舊活字本 古小說全集』3, 東西文化院, 1983, pp.440~441.)

67) ① 『肅宗實錄』 肅宗 15年 2월 辛亥條 “濟州人金泰瓊於丁卯九月 領牧使李尙전(諡)所進馬行船至楸子島前爲風所漂 三十一日到安南國會安地”

② 『成宗實錄』 成宗 23年(1492年) 정월 乙酉條 “上御宣政展 引見崔溥 問漂流時事 崔溥曰 臣於戊申正月 在濟州 聞父喪 遑遑渡海 夜泊草蘭島 北風忽起 隨溥上下 漂至中國寧波府界”

『高麗史』57卷의 기록에 보면 “大火脫島와 小火脫島 사이는 두 水流가 교차되어 흐르는 곳이므로 파도가 소리를 내어 울부짖는 험한 곳이므로 이 뱃길을 지나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곳은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⁶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⁷⁰⁾·『大東韻府群玉』⁷¹⁾·『林下筆記』⁷²⁾·『南槎日錄』⁷³⁾·『耽羅志』⁷⁴⁾에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 기록에 나타난 추자도와 관탈섬(火脫島) 해역은 조류가 세고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 표류하거나 해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곳이다.

따라서 [3]의 창자는 “죽은 배에 짐 하영 시건 / 추즈 과탈 양 새에 드난 / 큰 오름은 아방을 삼곡 / 죽은 오름은 어명을 삼안 / 선계 먹을 근심 안하곡 / 이내몸 살을 근심이라라(작은 배에 짐을 많이 실어서 추자도와 관탈섬 양 사이에 드니, 큰 오름은 아버질 삼고 작은 오름은 어머닐 삼아 船價 먹을 생각은 없고 이 내 몸 살아날 근심이다라)”라고 노래하고

68) <成宗實錄> 成宗 10년 6월 乙未條에 기록된 金非衣 일행의 <漂流記>, 李暹 일행의 <漂流記>, 金紀孫 일행의 <漂流記>, 崔瀾의 <漂海錄>, 鄭東愈의 『畫永編』上的 高商英 일행의 <漂流記>. (윤치부,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여기저기)

69) 『高麗史』57卷, 志11-地理2, “火脫之間二水交流波濤洶湧凡往來者難之”

70) 李荇·洪彦弼, 『新增東國輿地勝覽』第五冊 卷之三十八, 全羅道 濟州牧, 1530(中宗 25年), “大火脫島在楸子島南石峯嵯峨其巔有泉無樹木有草柔韌可作器具. 小火脫島在楸子島西南石壁削立兩島之間二水交流波濤洶湧船多漂溺往來者甚苦之”

71) 權文海, 『大東韻府群玉』卷之二十, 1798(正祖22年), “船多漂溺 楸子島在海中往耽羅者皆經此島過大小火脫島至朝天館蓋海路險惡出入候風火脫之間二水交流波濤洶湧(應製詩註)”

72) 李裕元, 『林下筆記』卷之十三 耽羅路程, 1871년(高宗 8年), “右三處舟船皆經楸子島過斜鼠島大小火脫島至於涯月浦朝天館大脫之間二水交流波濤洶湧往來者難之”

73) 李增, 『南槎日錄』四月初四日癸亥, “午時過大小火脫浪高舡搖. 舟中人皆 患水疾昏倒唯余及姜裨康津通引黃友賢董免. 而舟人合掌列立觀音菩薩之聲 不絕於口可知其危險. 日曠時過楸子島. 兩島間水勢頗急. 而舟人皆言過此火脫今無虞矣.”

74) 李元鎮, 『耽羅志』濟州牧 山川, 1653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大火奪島在楸子島西南石峯嵯峨其巔有泉無樹木有草柔韌可作器具. 小火奪島在楸子島西南石壁削立兩島之間二水交流波濤洶湧船多漂溺往來者甚苦之”

있다. [2]·[3]·[4]에는 화탈도 해역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漂海類 작품에서 표류자들이 폭풍우 치는 바다의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야 하겠다는 집념보다는 쉽게 생명을 포기하여 체념하고 있는 것⁷⁵⁾과는 대조적으로 노 젓는 해녀들의 생에 대한 강한 집념과 고난 극복의 의지가 남다르다고 하겠다.

[2]·[3]·[4]는 그만큼 추자도 관탈섬(火脫島) 해역이 본토로 가는 위험한 뱃길이었다는 구연자 자신의 체험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는 <노 젓는 노래>의 구연 현장인 바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노를 저어 가는 바다의 현장성과 체험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火脫島 해역의 위험한 상황을 노래한 한시로는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의 <毛羅歌>를 들 수 있다.

火脫島西水相擊 화탈도(火脫島) 서쪽 물이 서로 부딪쳐
 風雷噴薄怒濤高 바람과 우레 힘차게 솟아오르고 성난 파도 높게 일어
 萬斛海鱗傾側過 수많은 바다상어 옆으로 기울여 지나가니
 行人性命若鴻毛 나그네의 생명 깃털과 같네.⁷⁶⁾

따라서 [2]·[3]·[4]는 제주도에서 본토로 가는 航路가 추자도를 경유하는 海路였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1]과는 달리 중세사회의 濟·京 海路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2]·[3]·[4]는 근세사회 이전인 중세사회에 지어진 <노 젓는 노래>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5]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75) 윤치부,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p.164.

76) 李增 著, 金益沄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p.216.

李元鎮 著, 김찬흠 외 7인 譯,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2002, p.208.

이여사나	이여사나
짚은 물 속	흔발 두발
더우치명	요돈벌영
인생 한 번	죽어나지면
지화로	봉토싸명
엽전으로	산담홀라
요목저목	홀들목
허리나 알루	저 바당은
수왕수왕	위염 햄쳐
이여도 일십	동넉허영
저 고비만	넘겨나노캐
이여라	디여라
지여라 가자	이여사나 ⁷⁷⁾

濟·京 海路는 중세사회에는 추자도를 경유해서 올라갔고, 근세사회에는 추자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所安島를 경유해서 올라갔다. 하지만 珍島의 울돌목(鳴梁海峽)과 碧波津부터는 서해안을 따라 중세사회나 근세사회의 濟·京 海路 모두가 비슷하게 펼쳐졌다.⁷⁸⁾

진도와 해남군 화원반도 사이에 있는 울돌목(鳴梁海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센 곳으로 협소한 해협을 따라 빠른 물살이 지나간다. 울돌목의 폭은 가장 좁은 부분이 293m이며, 조류는 사리 때의 유속이 11.5노트이고, 수심은 19m이다. 이곳은 물살이 빠르고 소리가 요란하여 바닷목이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울돌목(鳴梁海峽)이라는 지명이 붙여진 곳이다.

『海南縣志』에 보면, “명랑은 물살이 세고 빨라 파도소리가 굉장하다. 양편에 돌산이 우뚝 서 있고 포구는 몹시 좁다.”⁷⁹⁾고 기술되어 있는데,

77) 『白鹿語文』제14집 -南濟州郡 大靜邑 日果里 現地學術調查報告(1997. 8. 1~8. 4), 백록어문학회, 1998, p.273의 자료

78) 오홍석,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제주도연구』제1집, 제주학회, 1984, p.100~101.

전라남도 목포나 해남군 지역으로 물질 갈 때는 지름길인 진도 울돌목을 거쳐서 갔다. 울돌목에서 노를 저어 본 해녀들은 이곳의 조류가 세고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 [5]에서 보면 울돌목의 물살 소리를 “수왕수왕”이란 의성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창자는 “요목 저 목 흘돌목 / 허리나 알루 저 바당은 / 수왕수왕 위엄 험쩌 / 이여도 일심 동넉허영 / 저 고비만 넘거나노케(이목 저목 울돌목. 허리 아래로 저 바다는 ‘수왕수왕’ 위험하다. 일심동력(一心同力)하여 저 고비만 넘거나 놓자)”라고 노래하고 있다. 즉 울돌목은 ‘수왕수왕’ 소리를 내며 흐르는 곳 이기에 위험하므로 一心으로 同力하여 저 울돌목의 고비를 넘어가자”고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해녀들이 出稼하거나 뱃물질 나갈 때 물결이 높거나 조류가 빠르거나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면 해녀들은 물살이 빠른 울돌목에서 노 저어 본 경험을 떠올리며 “요목 조목 울돌목가”라는 사설을 불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울돌목 바다의 현장성이 <노 젓는 노래>의 사설에 투영되어 [6]과 같이 “요목 조목 / 울돌목가”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겠다.

[6]	요목 조목	울돌목가
	우리 배는	잘 올라간다
	잘잘 가는	잣나무 배야
	술술 가는	소나무 배야
	하루 속히	돈 벌어서
	우리나 제주	빨리 가자
	이여도사나	저라저라
	어기야디아	잘 올라간다
	힘을 모아	젓어보자

79) 鳴梁 在右水營三里之地 而水勢悍急 波聲轟殷 兩邊石山簇立港口甚狹.....海南縣志下同 鳴梁在碧波上流 海口甚狹 水勢激湍而鳴. (『李忠武公全書』卷之十四附錄六, 海南縣志).

이여사나⁸⁰⁾

[7]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이여도사나	잘도간다
	요넬젓고	어덜가리
	진도바당	흔골로간다 ⁸¹⁾

진도 바다는 본토로 갈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바다였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중세사회나 근세사회의 濟·京 海路는 진도 바다를 거쳐서 서해안을 따라 올라갔다. 이러한 현장성이 <노 젓는 노래>의 사실에 투영되어 [7]과 같이 “요넬젓고 어덜가리 / 진도바당 흔골로간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겠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해보면, <노 젓는 노래>에 나타난 해녀들의 제주도에서 본토로의 出稼 海路는 추자도를 경유해서 본토로 가는 중세시대 해로와 추자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所安島를 경유하여 본토로 가는 근세시대 해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가창 방식과 구비 전승

해녀들이 돛배나 발동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하는 물질을 뱃물질이 라고 한다. <노 젓는 노래>는 여러 명의 해녀들이 일제히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건인 노 젓는 노동 현장에서 獨 唱으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고, 先後唱이나 交換唱으로 부른다. 다만, 노가 하나밖에 없는 아주 작은 소형어선(거룻배)의 노를 저을 경우나, <노 젓는 노래>를 채록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건에서는 독창으로도 부른다. 사실만을 채록하는 경우에는 독창이 효과적이다.

80) 필자채록(경남 통영시, 2001. 12. 20), 현종순(女, 1943년 제주도 우도면 출생)

81) 김영돈, 『濟州의 民謠』, 신아출판사, 1993, p.223의 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정착해 살고 있는 제주 출신 해녀 제보자인 김정자(金靜子)⁸²⁾에게 실제 현장에서 돛배를 타고 뱃물질 나갈 때 배에는 몇 명의 해녀가 타고, 橈는 몇 명이 젓고, <노 젓는 노래>는 몇 명이 부르며, 어떤 방식으로 가창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제보자인 김정자는 “부산 영도 청학동 포구에서 조도(현재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 섬)로 뱃물질을 나갔는데, 돛배 한 척에는 보통 7~10명 정도의 해녀들이 함께 타고 물질하러 다녔다. 적게는 2명이나 3명, 많게는 5명이 함께 노를 저었는데, <노 젓는 노래>는 노 젓는 해녀들만 불렀고 나머지 해녀들은 휴식을 취하며 물질 작업 준비를 한다. 또한 노를 젓는 것은 고된 노동이므로 교대로 노를 저었다”고 했다.

이제 제보자 김정자가 들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해녀들의 <노 젓는 노래>가 실제로 노 젓는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선후창이나 교환창으로 가창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노 젓는 노래>의 구비 전승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가창 방식을 살펴보면, 先後唱이나 交換唱을 할 때 앞소리는 <노 젓는 노래>를 잘 부르고 물질 기량이 능숙한 上軍⁸³⁾ 해녀가 담당한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 뒤쪽 가장자리에서 젓는 橈인 ‘하노(하네)’는 일반적으로 뱃사공이 젓지만, 간혹 노 젓는 기량이 뛰어난 上軍 海女가 저을 때도 있다. 이처럼 상군 해녀가 ‘하노’를 저을 경우에 앞소리는 ‘하노’를 젓는 상군 해녀가 부른다. 뒷소리는 배의 양쪽 옆에 나온 부분인 뱃파라에서 젓는 橈인 ‘젓걸이노(젓걸이네)’를 젓는 해녀들이 부른다. 왜 하필이면 ‘하노’를 젓는 해녀가 앞소리를 부르는 것일까. 先

82) 김정자(金靜子), 여·63세, 부산시 영도구 청학2동(2002. 7. 31), 1940년 4월 29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에서 출생하여 표선면 하천리에서 성장했다. 18세에 초용으로 부산 다대포에 물질 나왔다. 27세 때 남편의 직장을 따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필자 채록, 2002년 7월 31일〕

83) 물질 기량에 따라 해녀 계층을 上軍·中軍·下軍으로 구분한다. 上軍 중에서도 특출하게 뛰어난 해녀를 大上軍이라 한다.(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p.92)

<그림 2> 노 짓는 해녀

後唱이나 交換唱의 경우라 하더라도 앞소리를 주는 사람은 ‘하노’를 짓는 상군 해녀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키[舵] 역할을 하는 노는 ‘하노’이고,⁸⁴⁾ 배가 나아가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노는 ‘젓걸이노’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노’를 짓는 앞소리꾼의 노동 강도는 ‘젓걸이노’를 짓는 뒷소리꾼보다 더 강화된다.⁸⁵⁾ 이는 한국 노동요의 대표격인 <모심기소리>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⁸⁶⁾

84) 뱃물질 나갈 때 바람이 불면 돛을 달고 가고, 바람이 멎거나 거슬러 불어오면 櫓를 저어서 갔다. 돛을 달고 갈 때는 ‘키[舵]’로, 노를 저어 갈 때는 ‘하노’로 돛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았다.

85) ‘하노’는 ‘젓걸이노’보다 크고 무겁다. 또한 배의 진행 방향을 바꿀 때는 힘이 더 많이 든다.

86) <모심기소리>는 선후창의 경우라 하더라도 앞소리를 주는 사람은 같이 모를 심는 여성이 하게 되는데, 대신 앞소리꾼의 노동 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해 다소 약화된다고 한다.(류경자, 『경남 남해군의 전승민요 연구 -<모심기소리>

따라서 ‘하노’를 짓는 상군 해녀의 노 짓는 동작에 맞춰서 ‘젓걸이노’를 짓는 해녀들이 노를 저어야만 배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결국 <노 짓는 노래>의 가락이나 노 짓는 동작의 완급은 전적으로 ‘하노’를 짓는 해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노 짓는 노래>가 실제 노 짓는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구비 전승되는지를 先後唱과 交換唱의 가창 방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노 짓는 노래>를 처음 배우는 해녀들은 先後唱⁸⁷⁾의 가창 방식으로 <노 짓는 노래>의 가락을 익히게 된다. 즉 <노 짓는 노래>에 능숙하고 물질하는 기량과 뛰어난 ‘하노’를 짓는 上軍 해녀가 뜻 있는 사설을 부르고 나면 처음 노래를 배우는 해녀들은 ‘젓걸이노’를 저으며 ‘이여도 사나’ 혹은 ‘이여씨’와 같은 후렴만을 받는다. 이렇게 후렴만을 따라 부르면서 <노 짓는 노래>의 가락을 익히게 된다.

어느 정도 <노 짓는 노래>의 가락을 익히게 되면, 앞소리 사설을 따라 부르는 交換唱의 가창 방식으로 앞소리를 부르는 해녀의 <노 짓는 노래> 사설을 조금씩 기억하게 된다.

交換唱은 앞소리 사설을 따라 부르는 경우와 앞소리와 다른 사설 부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노 짓는 노래>을 배우는 下軍 海女는 앞소리 사설을 따라 부르는 경우가 많고, <노 짓는 노래>에 익숙한 上軍 海女는 앞소리와 다른 사설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해보면 앞소리 사설을 따라 부르는 교환창은 후창자가 가락을 어느 정도 익힌 상태에서 고정적 사설을 익힐 때 부르고, 앞소리와 다른 사설을 부르는 교환창은 후창자가 노래를 완전히 배워서 자신의 감정을 가락에 실어서 사설로 표출할 수 있을 때 부른다.

따라서 <노 짓는 노래>를 배우는 과정은 ① 선후창 ② 앞소리와 같

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9.)

87) 先後唱으로 노래를 할 때에는 歌詞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先唱者에게만 주어지고, 後唱者는 후렴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張德順 의 3인,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6, p.90.)

은 사설을 따라 부르는 교환창 ③ 앞소리와 다른 사설 부르는 교환창 ④ 독창의 순서가 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노 젓는 노래>의 수집된 자료와 연구 성과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해녀의 본토 出稼와 海路를 현장론적 입장에서 구연 현장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노 젓는 노래>의 구비전승과 가창 방식도 규명해 보았다. 이러한 가운데 <노 젓는 노래>를 현장론적 입장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녀들이 본토로 출가한 원인은 잠수 기술의 발전과 인원의 증가보다는 어장의 황폐화 때문이었다. 해녀들은 1889년경부터 본토로 出稼하였는데, 1910년대의 해녀 출가 상황은 客主의 모집에 의한 방법이 대표적인 형태였다. 1920년대부터는 제주 - 본토간 정기 여객선이 취항했는데도, 出稼地로 갈 때 무동력 어선인 돛배를 타고 간 것은 출가지에서 돛배를 이용하여 뱃물질을 가기 위해서였다.

해녀들의 본토 出稼 海路는 火脫島·楸子島를 경유해서 본토로 가는 중세시대 해로와 추자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所安島를 경유하여 본토로 가는 근세시대 해로를 이용했다. 전라남도 해남이나 목포 또는 서해안 쪽으로 출가할 경우에는 지름길인 울돌목(鳴梁海峽)을 거쳐서 갔고, 경상남도 통영·사천 지역과 부산 또는 동해안 쪽으로 출가할 경우에는 所安島 해역에서부터 남해안의 다도해를 따라서 갔다.

추자도와 관탈섬(火脫島) 해역은 조류가 세고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는 곳으로 표류하거나 해난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위험한 바닷길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옛문헌들을 찾아보았다. <노 젓는 노래>는 이런 바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노를 저어 가는 바다의 현장성과 구연자 자신의 체험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해녀들은 바닷길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좌절하지 않고 살아날 방도를 찾는 생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는 漂海類 작품에서 표류자들이 폭풍우 치는 바다의 극한 상황 속에서 쉽게 생명을 포기하여 체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先後唱이나 交換唱의 방식으로 노래할 때 앞소리는 ‘하노’를 짓는 上軍 해녀가, 뒷소리는 ‘젓걸이노’를 짓는 해녀가 부른다. ‘하노’는 ‘젓걸이노’를 짓는 해녀보다 <노 짓는 노래>를 잘하고 물질 기량이 뛰어난 上軍 해녀가 맡는데, 이는 ‘하노’가 배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고, ‘젓걸이노’는 배의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노’를 짓는 앞소리꾼의 노동 강도는 ‘젓걸이노’를 짓는 뒷소리꾼보다 더 강하다.

<노 짓는 노래>의 가락이나 노 짓는 동작의 완급은 전적으로 ‘하노’를 짓는 해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하노’를 짓는 해녀의 노 짓는 동작에 맞춰서 ‘젓걸이노’를 짓는 해녀들이 노를 저어야만 배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짓는 노래>의 구비 전승은 先後唱으로 가락을 익힌 다음에 交換唱으로 사설을 배우며 이루어진다. <노 짓는 노래>는 ① 선후창 ② 앞소리와 같은 사설을 따라 부르는 교환창 ③ 앞소리와 다른 사설 부르는 교환창 ④ 독창의 과정으로 배우게 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자료집 및 단행본

『高麗史』

『국문학보』 제8·9·10·12·13·14·15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

- 『백록어문』 제11·14·15·16집, 백록어문학회, 1995~2000.
- 『백록어문』 창간호·제2·5·6·7·9집,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6~1992.
- 『별건곤』 제31호, 1930.
- 『별건곤』 제42호, 「海女の 노래, 濟州道民謠」(1931년 8월 1일).
- 『비비장전』, 新舊書林, 1916.(仁川大學 民族文化研究所 資料叢書刊行委員會, 『舊活字本 古小說全集』3, 東西文化院, 1983.)
- 『李忠武公全書』 卷之十四 附錄六, 海南縣志
- 『朝鮮王朝實錄』, 「肅宗實錄」·「成宗實錄」
- 『학술조사보고서』 제8집, 제주대 국문과·국어교육과, 1984.
- 康大元, 『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3.
- 高橋亨, 좌혜경 옮김, 『제주섬의 노래(濟州島の民謠,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 1968)』, 국학자료원, 1995
- 權文海, 『大東韻府群玉』
-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金榮墩,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民俗苑), 1993.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9-1(북제주군 편, 1981)·2(제주시 편, 1981)·3(서귀포시·남제주군 편, 1983).
- 김영돈·현용준의 『한국구비문학대계』9-1(1980)에 1편·9-2(1981)에 7편·9-3(1983)
- 金永三,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
- 金宗直, <毛羅歌>, 李增 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篇), 1974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篇)』, 1974.
-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 윤치부 주해, 『표히록』, 박이정, 1998.
- 윤치부, 『韓國海洋文學研究』, 學文社, 1994.

- 李 健, 『濟州風土記』
李元鎮 著, 김찬흠 외 7인 譯,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2002.
李裕元, 『林下筆記』
李增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李昌植, 『韓國의 遊戲民謠』, 集文堂, 1999.
李苻·洪彥弼, 『新增東國輿地勝覽』
任東權, 『韓國民謠集Ⅰ』, 集文堂, 1961.
任東權, 『韓國民謠集Ⅱ』, 集文堂, 1974.
任東權, 『韓國民謠集Ⅲ』, 集文堂, 1975.
任東權, 『韓國民謠集Ⅳ』, 集文堂, 1979.
任東權, 『韓國民謠集Ⅴ』, 集文堂, 1980.
임석재, 『한국구연민요-자료편』, 집문당, 1997.
林 和, 『朝鮮民謠選』, 學藝社, 1939.
張德順 외 3인,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6.
秦聖麒, 『南國의 民謠』, 正音社, 1977.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1집, 희망프린트사,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秦聖麒, 『濟州島民謠』 제3집, 성문프린트사, 1958.
崔 溥, <耽羅詩 三十五絶>, 李增 著, 金益洙 譯, 『南槎日錄』, 濟州文化院, 2001.

□ 논문

- 강동하, 「민요 후렴의 현장론적 이해」, 『한국민속학』 제26집, 민속학회, 1994.
김기현·권오경, 「경북 동해안 지역 어업노동요」, 『한국민요학』 제7집, 한국민요학회, 1999.
金科白, 「女人國巡禮, 濟州道海女」, 『삼천리』 제1호, 1929.
金思燁·崔常壽·方鐘鉉, 『朝鮮民謠集成』, 正音社, 1948.
김영돈, 「濟州島民謠研究 -여성勞動謠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3.

金榮敦, 「濟州島海女の 出稼」,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通文館, 1971.

김영돈, 「出稼海女の 노래」, 『韓國民俗學』 제12호, 民俗學會, 1980.

김영돈, 「海女노래(1)」, 『北泉沈汝澤先生華甲紀念論叢』, 형설출판사, 1983.

김영돈, 「海女노래와 海女」, 『心岳 李崇寧先生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 同刊行委員會, 塔出版社, 1977.

김영돈, 「海女노래의 機能과 辭說分析」, 『훈민정음崔正如博士頌壽紀念 民俗語文論叢』, 계명대출판부, 1983.

김영돈, 「海女노래의 사실 분석」, 『국어국문학』 89권, 국어국문학회, 1983.

김영돈, 「海女の 珍重性和 그 研究課題」, 『韓南語文學』 제13집,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김영돈, 「海女出稼와 그 民謠」, 『玄谷梁重海博士華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1987.(『白鹿語文』 3·4호 합병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金俊培, 「韓國 民謠의 韻律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2.

羅承晚, 「전남지역의 들노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변성구, 「해녀 노래의 사실 유형 분석」,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양순필, 「16·17세기 제주풍토록과 풍토기의 대비」,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화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92.

오홍석, 「帆船 航海時代의 濟·京海路」,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학회, 1984.

柳鐘穆, 「韓國民間儀式謠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한국민간의식요연구』, 集文堂, 1990.

乙人, 「盈德은 엇더한 지방?」, 『개벽』 제39호, 1923.

이성훈, 「民謠 提報者의 生涯와 辭說」, 『白鹿語文』 제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이성훈, 「통영지역 해녀의 <노 젓는 노래> 고찰-노동 행위와 민요 가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崇實語文』 제18집, 송실어문학회, 2002.

이창식, 「경합유희의 현장론적 연구」, 『한국민속학연구』, 민속원, 1997.

- 이창식, 「口碑詩歌의 口演樣相 -방아전승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민요학』 제6집, 1998.
- 李昌植, 「韓國遊戲民謠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田口禎熏, 「제주도의 해녀」, 『조선』 218호, pp.81~82.(진관훈, 「日帝下 濟州島 農村經濟의 變動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5에서 재인용)
- 진관훈, 「日帝下 濟州島 農村經濟의 變動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秦聖麒, 「濟州 民謠에 보이는 女人像-특히 海女노래를 중심으로-, 『濟大學報』3, 濟州大學再建學生會, 1960.
- 崔永日, 「濟州島의 民謠」, 『崇實大學報』 제2호, 崇實大學學藝部, 단기4289 (1956).
- 崔鶴璇, 「濟州島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 『現代文學』 제4권 12호, 現代文學社, 단기4291(1958).
- 한창훈, 「제주도 민요와 여성 : 특히 '잠수(潛嫂)'의 생활과 연관하여」,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 한창훈, 「제주도 민요와 여성(2) -특히, '잠수(潛嫂)'의 생활과 연관하여-, 제3회 민속학 국제학술회의, 1999.
- 한창훈, 「제주도 잠수(潛嫂)들의 생활과 민요」, 『耽羅文化』 제20집,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9.
- 후지나가 다케시, 「1932년 제주도 해녀의 투쟁」, 『제주도의 옛기록』, 제주 시 우당도서관, 1997.